

제 5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참 가 자 들 을 위 한 조 선 인 민 군 협 주 단 음 악 무 용 종 합 공 연 진 행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쟁로병들인 양형섭동지, 리명수동지, 태종수동지, 최영립동지, 리용무동지, 오구원동지, 김시학동지를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호동지, 김경해동지, 오수용동지, 안정

수동지, 박대성동지, 최취동지, 박대덕동지,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전투적 경례를 드리며 《7.27행진곡》의 노래 선율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승철의 환희가 차넘치는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3중창과 합창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제 경의를 드린다》, 혼성2중창 《전승의 속보여 말하라》, 무용 《속사리인민들과 함께》, 가야금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명군술, 헌없이 숭고한 사람과 헌신으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전편승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불비축을 해치며 전진코

를 열던 가련한 전희의 나날 싸우는 고지마대에 울려 퍼진 《전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문경고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전쟁로병들에게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전투적 기상과 혁명적만민을 담은 무용 《화선오락회》, 남성중창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와 포연탄우를 해치며 전시생산과 전선전호에 성심성의를 다한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남성중창 《아름다운 고향》, 여성인요독창 《뽕따리 가세》 등이 편이루 무대를 올랐다.

주제조선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세기를 이어 빛내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진 때마다 장내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났고 열광적인 박수가 더저올랐다.

백두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예지력으로 김일성, 김정은조선의 존엄과 필승의 위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최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혼성8중창과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관람자들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에 조국

내세워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깊높이 빛나고있음을 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년대의 찬가들로 장내를 진감시킨 공연은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는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 《승리는 더 큰 이어》로 끝났다.

영웅조선의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회복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며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전민군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시위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시시각각 더해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조국을 위해 퍼출린 청년시절은 긍지높이 풀이겨보고 신심과 평안에 넘쳐 걸어갈 생의 앞길을 가슴뜨겁게 안아보는 우리의 전쟁로병들, 그들속에 꽃피는 아름다운 생활, 총정과 보탬의 숭고한 세계를 여기

이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일군들은 사물처럼 비탄한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가지고 박영해전쟁로병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화폭은 얼마나 감동적이었던가. 전쟁로병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은 참으로 다정다감이었다. 그들수용 전쟁로병을 위해 바치고 고심은 그들의 진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마음뿐이라. 당에서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가들로 내세우고있는 전쟁로병들을 위하여는 뜨거운 마음들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로병대회참가자들에게로 팔려가 불철착오고 있었다.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자 맨 선함으로 전진으로 헌원해나갔다. 군복을 벗은 후에도 전희의 나날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복숨바쳐 싸우던 화선명사의 그 사색으로 만경대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근 30년세월 때뒀한 망심을 바쳐오고있었다. 이런 김순녀전쟁로병이었기에 그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지기를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불러주시겠다는 골짜는 소식에 걸하고 또다시 수령에 대한 백골같은 충성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것이였다. 전희의 나날 정찰소대장이었던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고 한들 시슴없이 바쳐온 우리 로병들의 충정은 이처럼 변함없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불소 조국해방전쟁참전현사보를 찾으시어 인민군원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현사보에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길 어쩌 상상이나 했으랴.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용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유엔이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들에게 머리속이 뜨거울 인사를 하실 때 충은하전쟁로병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꿰뚫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데오에 조국경사수호의 백봉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골짜는 나날을 보내고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애제도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빛나는 삶을 누릴것이다.

뜻깊은 전승절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축소를 찾았을 때 김백공영 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교원이며 교수 박사인 하세경진 전쟁로병은 우리앞에 대회참가증을 꺼내놓았다. **《우리모두는 대회참가증을 속소로실에 편히 앉아서 만났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흔히 대회참가증수여식은 전제 대회참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정중찬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호실에 앉아서 참가증을 수여받았다는 뜻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한 날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전쟁로병들의 축소를 찾았다. 일군들은 매 호실들에 들려 또다시 당의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게 된 전쟁로병들을 축하하였으며 그들에게 대회참가증을 수여하였다.

이 이야기를 마친 오병철전쟁로병은 말했다. **《그때에는 몸이 상하지 못해 침상에서 혼장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직 오목이 성실한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그저럼 다정한 사랑을 부여해주셨습니다.》** 말을 다루어 격정을 토로하는 로병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 땅에 아로세겨진 위대한 사랑의 진실중중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조선인민군 중군기차였던 리인모동지가 조국의 품에 안겨 치료받았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가 입원한 병원호실을 찾으시어 리인모동부와 같은 신념과 의지의 최선, 훌륭한 봉산주의자를 가진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치하하시었다. 리인모동부는 해방직후에 입당한 로당원이라고 하시며 친히 그에게 입당당시의 당원증번호와 자신의 수표가 새겨진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해주신 이비이수명님, **《정명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바친 피와 땀을 헌없이 소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당원증과 대표증, 훈장과 메달들을 받아안았던가.》** 혁명전사들을 혁명의 길을 함께 갈 영원한 동지, 전혈육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을 대대로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이런 감동깊은 사신들이 세대와 년대를 이어 꽃피는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로병들의 증지 높은 이름이 새겨진 참가증에서 오대도록 눈길을 땀수 없었다.

영애군인로병을 위한 진정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영해전쟁로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로병의 직책과의 싸움에서 한 다리를 잃은 영애군인이다. 그가 사회과학원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일군의 방에서는 김경현의회가 진행되었다. **《나이도 많고 몸까지 불편한 박영해연구사동지의 생활을 더 잘 돌보아줍시다.》** 그날 협의회에서는 대회 전기간 박영해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고 여러가지 조직사업

한 전쟁로병들이 안고온 지중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진 그날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 살고있는 김순녀전쟁로병이 구역의 한 일군을 찾아왔다. 로병이 가져온 지할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관리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어찌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화선명사의 불타는 충성일애 일군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김순녀전쟁로병은 나라였던 그 세월 지주집이아보게로 온갖 현대와 열시를 받으며 살아온 자기들 새 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그 은덕이 고마워

화선시인의 걱정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속소에 돌아온 그날 격정에 넘쳐 시를 읊는 한 전쟁로병이 있었다. 충은하전쟁로병이였다. 그가 60여년전 막동강도하전 투에서 희생된 전우들을 그리며 지었다는 자작시를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날에 읊는다는 사연이 있었다. 사실 충은하전쟁로병은 자기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걸하고 생각이 많았다. 막동강계선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이 영광의 대회장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마음에서였다.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허명숙

